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출범하며

박상은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마치 어두움과 사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잔인한 4월에 터진 세월호참사로 3백여 명의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눈앞에 아직 다 잠기지 않은 뒤집어진 배를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지켜보아야했던 우리 모두는 마지막 외치는 우리 자식들의 비명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생명을 경시했던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공범자요 살인방조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월호는 2014년 세월 속에 묻히고 서서히 잊혀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사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판교 환풍구 사고와 펜션 화재사고, 이어지는 어선의 침몰사고, 토막 살해된 주검...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구타로 젊은 청년들이 생을 마감하고, 지금도 어린 학생들은 학업의 부담으로 생을 일찍 접으며, 아파트경비원과 실직한 어른들은 마지막 자존감을 침해당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난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 끝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두움의 터널은 언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긴 터널을 운전하고 가다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 가도 가도 끝이 없어 행여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작은 한 줄

기 빛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눈부신 광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터널은 마침내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도 했으며, 벽을 벽이라 생각지 말고 문이라 생각하며 밀어보면 그곳에 문이 열린다고도 했습니다.

생명이 존중받으며 마음껏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밝은 세상은 언제 올 것이며 누가 만들어 줄 것인가? 우리 모두는 물량주의, 자본주의, 성장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과연 얼마나 소중히 지켜왔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추적하다보면 뱃속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낙태의 잔인함이 자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일탈과 폭력의 배경에는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과 드라마의 선정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돈을 숭배하는 어른들의 배금주의와 이중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명은 돈과 쾌락에 밀려 우리들의 관심사의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있습니다.

생명이 첫째입니다.

이제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외쳐야 합니다. 안전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돈과 명예와 쾌락보다도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명제입니다. 생명은 한번 뿐이고 되돌릴 수 없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입니다. 그 아무리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또한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중증장애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생명은 우주보다 귀한 목적적 존재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첫 번째 우선 순위입니다.

암매장 당하는 소녀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낙태되는 태아의 비명을 들을 수 있으며 토막 살인된 주검을 통해서는 갈기갈기 찢겨진 어린 생명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한 형법학자는 이런 끔찍한 살해사건은 이미 낙태

술로 오랫동안 습득되어지고 반복된 범죄의 행위가 바깥으로 표현된 사회 현상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들—인공 유산, 여아살해, 장기매매, 안락사—등이 곧 이성문란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급기야 폭력과 살인을 위시한 각종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종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첨단의학과 세계관

한편, 의학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새로운 기술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다음 기술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불임치료, 자신의 입맛대로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타입의 정자와 난자를 살 수 있는 세상, 태아 세포 이식술,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이식, 장기수급이 부족해서 그 대책으로 등장한 뇌사문제,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의사의 안락사 시비, 복제 양으로 야기된 인간 복제논란, 모두가 의료인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전문적인 윤리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생명윤리의 이슈들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어릴 적부터 경험하고 배우면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소수의 인간생명의 가치에는 그리 관심을 쏟지 않으며, 쾌락과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는 얼마든지 인간 생명을 수단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

서운 황금만능주의, 출세주의, 천민자본주의 아래 우리 모두는 속박당해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생명존중헌장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제 우리 모두 생명존중헌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인간생명의 절대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생명존중헌장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및 대학교와 평생교육을 통해서 생명존엄성을 교육하는 기준이 되어야하며, 향후 만들어지는 안전 매뉴얼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사회지도층,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서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며 실천해 내는 생명존중운동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도 바로 생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데는 그만큼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보다도 귀한 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사회는 아무리 경제적 발전과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파멸하고 말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중대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역할

지난 10년간 1기에서 3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나름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황우석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생명윤리의 혼란 속에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연구윤리의 토대를 쌓아왔으

며, 연명치료중단의 대법원판결 이후 이를 법제화하는 소임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생명윤리의 현안을 다루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음을 자인하며 향후 4기에서는 본격적인 국가 생명윤리체계를 갖추과 동시에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윤리의식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16개 존재하지만 본 위원회가 그 중 가장 역할이 미미한 위원회로 분류되어 왔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생명경시풍조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 보고에 의하면 정기회의가 연 4회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위원회이며 자체 홈페이지조차 없는 위원회로 분류되어 향후 소멸될 위원회 후보로 올라와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정기회의가 분기별 1회, 연 4회인만큼 이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할 것이며 홈페이지를 비롯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와 유전자검사, 인체유래물 사용 등의 생명윤리이슈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며 임상에서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며 이를 평가, 인증하는 체제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3. 더욱 중요한 것은 세월호사건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한 바와 같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를 없애고 생명존중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법에서 국가위

원회에 부여한 첫 번째 임무가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하며 생명윤리관련학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성인과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4. 생명윤리와 연관된 여러 아젠다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한두 가지의 이슈를 정하여 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3년 임기 내에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모색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인 자살문제를 본격적으로 다각적으로 다루며, 장기, 조직, 인체유래물로 나뉘어져 있는 인체조직 기증 및 활용에 대한 통합적 제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아울러 3기 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된 입법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생명존중의 문화가 살아나며 이를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할 윤리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1주기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기를 맞아 생명존중헌장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대학교 뿐 아니라 평생교육원과 노인대학에서 까지 이를 교육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생명윤리에 애착과 열정을 가지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5개 전문위원회에 해당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수석간사를 맡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번 4기 위원회가 더 없이 기대가 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주년인 올해 2015년, 마침내 생명존중헌장이 만들어짐으로 생명존중의 원년이 될 것을 모두와 함께 간절히 소망해봅니다.